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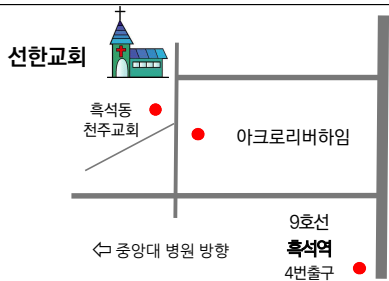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교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2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6장	
교 독 문		교독문 14 (시편 24편)	
찬 양 과 경 배		427장 (통일찬송가 516장)	
대 표 기 도		윤호중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1 ~ 3절	
설 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교회안에서의 섬김 (롬12:3-8)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5월 3일까지 11시 예배를 가정 영상예배로 드림
(홈페이지와 교회공지방 링크)
5월 10일부터 교회에서 3부로 나누어 드릴 예정임
2. 주중예배: 5월 1일부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림
3. 각종행사: 체육예배를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2. 기타안내

1. 출석체크를 위해 가정별로 영상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담임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부서별, 셀별 기도 제목을 담임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건강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보충]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6. 성경암송(20구절): 히11:6 / 빌4:6,7 / 빌4:19
롬8:32 / 벧전5:7

4.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함께 예배할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온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돌릴수 있기를
--------------	--

가정예배

오직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찬송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통 363)

본문 : 사무엘상 17장 41~54절

말씀 :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에베스담밈에 진 쳤습니다. 블레셋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골리앗은 3m가 조금 안 되는 거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맞서 싸울 장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으로 세운 사울조차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 심부름을 나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싸우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칼을 착용하려 했지만 익숙하지 않아, 벗어던지고 돌 다섯 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이런 물골로 나온 다윗을 둘러보다가 업신여기고 저주했습니다. 여기서 ‘둘러보다가’ 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한낱 어린 소년으로 봤습니다. 외모를 취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실력 있고 기세가 등등해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물매 돌을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졌고 돌에 맞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와 이름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참아도 여호와와 이름이 무시당하는 현실은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현실에서는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을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외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열등감이나 기가 죽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물매 돌, 정직과 성실의 물매 돌,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물매 돌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5:1-3)
서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론	1. 심령이 가난한 자 (1)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다. (2)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이다. (3)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2. 교훈 (1) 나는 천국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2)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3)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날짜 : 4월 27일
찬양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문	신명기 10:12-22		
	믿음의 여정 중, 성도는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 앞에 혼란을 겪고,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면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다면, 이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 살롬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상대적 행복의 기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다툼과 경쟁, 좌절과 수치가 있을 뿐입니다. 절대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적당한 동의와 시능, 세상과 적당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근원부터 일어나는 개혁이며, 혁명입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례란 생식기 끝을 자르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육체에 행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참 순종의 표현입니다. 절대행복은 성도의 내적 변화에 기반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참모습이며,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했던 바울은 로마 황제의 위용을 입은 고관대작들이 즐비한 청문회장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행26:19-23). 바울은 썩어 없어질 권력과 권세 상대적 기준 앞에 기죽지 않았습니. 절대행복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1.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찬양과 기도	피난처 있으니 (새찬송가 70 / 통일찬송가 79장)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900년경 강화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식 없이 홀로되었지만 비교적 넉넉한 형편이었던 김씨 부인은 복섬이란 여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80세가 되어 복음을 전해 듣고 잠두교회(현 강화읍 강화중앙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성경을 읽던 중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부인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적용했습니다. 복섬을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것을 ‘매는 것’으로,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것을 ‘푸는 것’으로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복섬의 종문서를 교인들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섬은 부인에게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한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이에 김씨 부인은 복섬을 양녀로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종에서 딸로 신분이 바뀐 복섬이는 힘을 다해 부인을 섬겼고, 부인 역시 복섬이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을 통해 많은 교인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실천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신명기 10:12~22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견할 대상이 없는 유일한 참신이시기에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요구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마땅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삽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왜 지켜야 하나요?(12~13절)	
적용하기	가정과 교회와 직장 등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계명을 은연중에 무거운 짐으로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제 행복과 생명을 위해 주신 계명임을 기억하고 즐거이 지키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오직 하나님만	날짜 : 5월 1일
찬양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본문	신명기 12:1-7		
	머뭇머뭇하는 엉거주춤의 신앙. 이 가짜 신앙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설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산당이 있을 텐데, 반드시 모두 헐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곳에서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즐거움을 누려야 한단다.’ 믿음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곳을 나도 원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허락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왜 수많은 가나안 산당을 허물라고 했을까요? 산당에서 얻는 종교적 안정감과 위로와 평안, 즐거움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는 풍요의 종교요, 대중의 종교였습니다. 현실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종교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또한 바알 종교 의식은 남녀 사제들과의 성행위였습니다. 그들의 종교행위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코 머뭇머뭇 할 수 없습니다. 엉거주춤 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알이 주는 즐거움이나,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나, 산당에서 얻어지는 안정감이나, 하나님이 주는 안정감이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수많은 다른 선택의 대상을 포기하고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촉구합니다. 모든 우상 산당을 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만을 누려야 한다는 선택과 결단의 촉구입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내가 주저하고 엉거주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매일 Q.T.		가르쳐야 할 것	날짜 : 4월 28일
찬양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본문	신명기 11:1-12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숨 고르기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숨을 고른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큰 의미입니다. 새로운 전환을 위해 숨 고르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애굽후 이스라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항거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역사는 직조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출발만 서두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칫,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만 집착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잊을 경우, 다시금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될까 하나님은 고라당 사건을 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칠 수 있지만, 사건을 함께 경험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과오를 직접 자녀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 마르투스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자녀에게 직접 신앙전통을 공유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는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앙의 가문은 교회공동체가 세워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대물림하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장성하여 고라와 다단, 아비람처럼 하나님 앞에 맞설 때, 과연 누구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방법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에 숨 가뼀던 우리 가정이 비로소 주님 안에 비로소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으로 명하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매일 Q.T.		들어오며 나가며	날짜 : 4월 29일
찬양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본문	신명기 11:13-21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땅의 경계와 농업을 하는 방법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부요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터전인 마음과 몸, 그리고 집과 일터, 관계, 그리고 자녀에게도 말씀을 기록하고 널리 알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환을 막기 위해 말씀을 부적처럼 쓰거나, 복을 빌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의 길잡이 삼고, 배경 삼아 살라는 명령입니다. 문설주는 단지 집에 들어갈 때 보이는 정문이나 현관문의 문설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관문의 문설주는 ‘바깥문’입니다. 여기서의 문설주는 각 가정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문의 문설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엌을 갈때에도, 침실을 갈때에도, 거실에 함께 모이거나 기도하러 골방에 갈때에도 ‘들으라’의 첫 글자 ‘쉐마’가 새겨져 있는 패가 문설주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 패에 손을 얹거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묵상질문	1. 나는 자녀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라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저주와 축복	날짜 : 4월 30일
찬양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본문	신명기 11:22-32		
	오늘 본문은 저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신명기 27장 이하에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이 담겨있습니다. 본문은 이를 요약해두었습니다. 이후에 다루겠지만, 방위를 나타낼 때, 현대는 북쪽을 기준으로 삼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뜨는 동쪽이 방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을 기준으로 부정한 왼쪽에 에발산(현재 북쪽)이 있습니다. 민둥산인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물입니다. 동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리심산(현재 남쪽)은 복음이 우거진 축복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은 에발산에 올라 저주를, 그리심산에 올라 축복을 가르치라 명령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시청각 교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그리심산의 풍요가 아닌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비록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에발산처럼 민둥산으로 마감합니다. 위용을 자랑했던 고관대작들은 에발산처럼 생명이 없이 메말라 있었고, 비루한 물골이었으나 바울은 그리심산과 같은 주의 생명이 역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면 복을 내리고, 뜻에 어긋나면 가차 없이 파괴하는 괴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축복과 저주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믿고 맡겨주시는 넉넉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달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 뛰어들어와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저주, 수치를 막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십자가 아래의 우리의 세상에서 가뺐던 숨을 고르십시오. 새로운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원 드립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찾아봅시다		
오늘의 기도			

금주의 성경암송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32)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